【1】 第13425號 (西紀1945.12.21 第三種郵便物認可) (西紀1960.7.1 登錄番號 A-10號) (西紀1920年3月5日創刊) 西紀1964年12月13日 (日曜日) 【第3版】 【日刊】

朝鮮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그實踐要綱을 遵守한다
서울特別市太平路1街61
社長 方一榮
發行人 方又榮
編輯人 劉鳳榮
編輯局長 鮮于煇
交換臺 ②3101~3103 ②2183~2185
直通 編輯局②3718 廣告部②8318 販賣部③3508
一部4面5원 8面10원 月定購讀料130원

世界의天氣 〔12日〕 UPI 本社特約

地名	날씨	氣溫C	톱·뉴스
뉴욕	비	14-8	美、越南援助增加에合意
런던	비	12-9	그로미코、訪英招請受諾
파리	맑음	10-5	罷業으로佛蘭西全國麻痺
東京	맑음	8-4	유엔本部에爆發事件發生
桑港	맑음	19-12	유엔本部에砲彈爆發事件

配達事故와購讀申請은 ②0773·③3625로

고단위 국민영양제
비타·엠
유유산업

野黨統合推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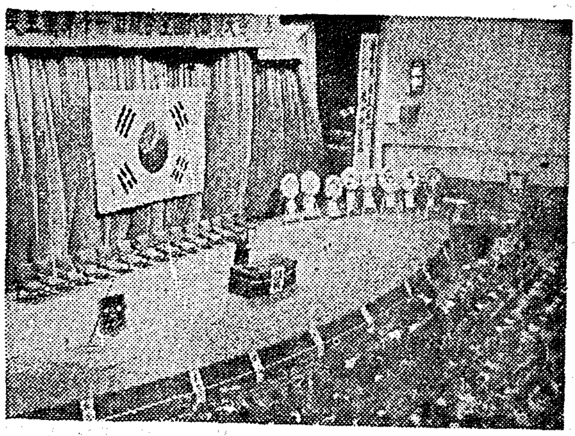
民主黨 어제全黨大會

새黨憲·決議文등採擇

"「朴政權」退陣에 不屈의鬪爭전개" 政淨法廢棄도要求

국민의당과 통합한 民主黨은 12日 市民會館과 鍾路禮式場에서 統合全黨大會(第11次)를열어 새로운 政綱·政策및 黨憲을채택하고、새黨憲에따라 代表最高委員에 朴順天씨、最高委員에 許政씨를、그리고 指導委員에 曺在千、鄭一亨、洪翼杓(以上民主系) 李相喆、李載瀅、(국민의당系) 5씨를 선정했다。

6백66명의代議員중 5백41명이 참석한가운데 9時부터 市民會館에서열린 大會는『野黨統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불순한 政界改編論을 경계하는 朴順天總裁의基調演說을 序頭로 選考委員들이 마련한 계획에따라 순조롭게 진행되었는데、任員選擧에 들어가 국민의당系에서 내기로한 2명의 指導委員選定문제로 논란이 일어 12時까지 代表最高委員、最高委員、民主黨系指導委員만을選考委案대로 이의없이 선임하고 정회했었다。


◇어제 市民會館에서 열린 民主黨統合全黨大會

代表最高委員에 朴順天、最高委員 許政氏
指導委員 曺在千·鄭一亨·洪翼杓·李載瀅·李相喆

大會는 하오2時부터 鍾路禮式場으로 場所를 옮겨 會議를속개、2명의 指導委員의 선거에들어갔으나 一次投票에서 李載瀅씨만이總投票數591명중 380票로당선되고 나머지 李相喆(280票) 金成浩(178) 李詰씨중 아무도 과반수를 얻지못하여 2次投票를 실시한결과 總投票數557명중李相喆씨319票、李詰씨223票、金成浩씨13票로 李相喆씨가 당선되었다。

朴順天總裁는 基調演說에서『朴政權은 南北統一論議를 政權延長과결부하여 취급하고있다』고비난하고『만약 金·大平「메모」를비롯한 모든 흑막적합의를 재검토하고 정상적인 교섭經路를통해 공명정대한 會談을 추진한다면 이를 적극지원하겠다』고 선언했으며、大會는 決議文으로써 이를뒷받침했다。

大會는 또한『朴政權의退陣을 촉진시키기위해 불굴의 투쟁을 전개한다』고결의하면서『파국에 직면한 政局을 救國하는 단하나의 남은길로 만난을 극복、在野政黨統合을 추진할것』을결정하고、이에관한 全權을 中央常務委員會에 위임했다。

大會는 그밖에 ①勝共祖國統一을위해 朴政權의 회색적인 統一논의에 속지않고 진정한 民主統一의길을 추구한다。②政淨法의 즉각폐기를 요구한다는등 내용의 決議文을 채택했다。

大會는 黨憲중 1명으로 되있는 最高委員數를 약간명으로、5명으로되있는 指導委員을 7명이내로、그리고 선출「케이스」中央常務委員數를 1백50명에서 1백80명으로 늘리도록 수정하고、그밖의 大會의權限은 中央委員會에 위임했는데、中央委員會는 13日 하오3時 鍾路禮式場에서 열린다。

民主主義에暗影 朴順天氏演說 共和黨서論評

共和黨의 申範植代辯人은 12日 民主黨全黨大會에서행한 朴順天代表最高委員의基調演說에대해『허황한 言辭와句節만을 등장시키고있는 野黨指導者의 연설에 실망한다』면서『모든것이 實定法에의해 처리운영되는 法治社會에서「매카시즘」의횡행은 韓國民主主義장래에커다란 暗影을 던지는것』이라고 비난했다。

申代辯人은『共和黨이 南北統一과 韓日國交타결을그들의 政權연장과결부、私心로이 이용해왔다』는 요지의 朴順天代表最高委員의 基調演說에 이같이 논평한것이다。

見習記者募集

朝鮮日報社는 다음과 같은 要領으로 見習記者를 募集합니다。

一、採用人員 若干名
一、應募資格 滿28세 이하의 건강한 男女로서 4년제大學卒業者 또는 65년도 卒業豫定者 但 男子는 兵役을 마친者
一、願書마감 64년12월18일 하오5시 안으로
一、志願書類 ①履歷書1통 ②사진(명함판) 2장(뒷면에 姓名을 쓸 것) ③戶籍抄本1통(筆記試驗合格者만)
一、接受處 本社 總務部
一、試驗日字 12월20일(日) 상오10시
一、試驗場所 나중에 發表
一、試驗科目 ①論文 ②常識 ③外國語(英·佛·獨·中語중 擇一) 但 英語는 必須로하며、獨·佛·中語選擇者는 英語 試驗을 간단히 치름、履歷書 끝에 選擇外國語를 밝힐것。
一、筆記 試驗 合格者만 口試및 面接試驗을시행함。
一、提出書類는 一切 돌려주지 않음

朝鮮日報社

百萬人署名綴「유엔」에提出

◇「유엔」찾아간「悲願」 拉北人士送還을 呼訴하는 百萬人署名綴이 朝鮮日報社 方又榮代表理事에 의하여「유엔」에 傳達되었다。(왼편부터)「유엔」人權局長「존·험프리」博士、金溶植「유엔」駐在大使、方乙生孃(本社方一榮會長令愛)、方又榮代表、金尙鉉씨(朝鮮日報編輯副局長)。【뉴욕11日發AP電送=同和】

明年3月 人權委에 上程

【유엔本部11日發AP=同和】「후버트·J·엔」記=「유엔」에 北韓에抑留되고있는 數百名의 南韓人들의 送還을 도와달라고要請한 陳情書가 11日「유엔」에提出되었다。이陳情書는 韓國人百萬名以上이署名한 朝鮮日報社代表理事 方又榮씨에 의해「유엔」人權局長「존·P·험프리」博士에게 提出되었다。「유엔」駐在金溶植大使도 그자리에있었다。「험프리」博士는 胃腸病으로 入院中인「우·탄트」「유엔」事務總長을代理하여 1百11卷으로된 1百1萬1千9百80名의 署名綴을 接受하였다。

拉北人士送還호소
本社方又榮代表一行 「험프리」人權局長만나

朝鮮日報社는 大韓赤十字社와協調하여 지난6月25日 韓國動亂14周年行事로 南韓에서 署名을 받기시작하였다。

이陳情書에는『動亂中北傀에依해 强制로拉北된 우리兄弟들을 南韓으로 即刻돌려보낼것』을 要求하였다。

方代表는「험프리」博士가 自己에게 이陳情書가 1965年3月에열릴 人權委會議에서 處理되도록 同委員會에 넘겨질것이라고말했다고전하였다。

方代表는「험프리」博士가 北韓에 抑留되고있는 南韓人이『可能한限 早速한時日內에 送還될것』을 希望한다고 덧붙였다고말하였다。

方代表는 또한「유엔」이 이送還問題에 解決을 가져올것으로 確信한다고 덧붙였다。이陳情書에첨부된 冊子는 北傀의 强制拉北에 依해 影響을받은 家族數는 8萬4千世帶에 이른다고말하고 北傀의殘惡相을 糾彈하였다。

朝鮮日報의 金尙鉉編輯副局長은『拉北된 人士中에는 살아있으면 現在80歲인朝鮮日報社長 方應謨씨도 들어있다』고 말하였다。

『方應謨씨는 많은 藝術人 文人및 技術者들처럼 서울에있는 自宅에서 北으로 强制拉致되어갔다』고 金副局長은 說明하였다。

金副局長은 方應謨씨가 現在 어디에있는지 또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조차 알수없다고 말하였다。

方又榮代表理事 一行中에는 方應謨씨의 曾孫女인 方乙生孃도 들어있다。金副局長은『「험프리」博士가 方孃의 曾祖父의 運命에대해 方孃에게 깊은 同情을 表明하였다』고 말하였다。

한편 方代表一行은 13日「워싱턴」에들른다음「로스앤젤리스」를거쳐 來22日서울에到着 歸國할豫定이다。

總會上程 可能性도

【뉴욕에서 本社特派員 金尙鉉發】 拉北人士送還을 呼訴하는 韓國人百萬名의 懇切한呼訴는 11日 朝鮮日報代表들에 의하여 마침내「유엔」에 傳達됐다。

「유엔」人權局長「존·험프리」博士는朝鮮日報代表理事 方又榮씨로부터 百萬人署名의陳情書를 親切히 받았다。

「험프리」씨는 이자리에서 滿足스러운 解決策이 講究되어 拉北人士들이 早速히送還되길 바란다고말하고 이目的을위해 이陳情書가 明年3月「제네바」에서열리는 第21次人權委員會會議에 提出될것이라고 確言했다。

이陳情書는 人權委員會가 關係國政府와 連絡한다음「유엔」總會에 提出되어 討議될지도모른다。

우드大將맞아 韓美軍事會談
軍援移管中止要請

美國防省軍援局長「로버트·J·우드」大將을 맞아 12일하오4時부터 國防部에서 韓美高位軍事會談이 열려 韓國軍의 軍備支援의 檢討에 이어 韓國側이 요청한 軍援移管計劃의 中斷問題를 討議했다。

이자리에는 金國防、「하우즈」美8軍司令官、閔機植陸軍總長을비롯한 3軍總長및海兵隊司令官、「버바」合同軍事顧問團長、그리고 國防部任忠植次官·張禹疇管理·南政卓備次官補가參席했다。

河甲淸氏를任命 文化財管理局長에

政府는 12日 전陸軍特務部隊長 河甲淸씨를 공석중인 文敎部文化財管理局長에임명발령하고、洪性復씨를 鐵道廳運輸局長에전임발령했다。

空港

入國
12日 ◇CAT便(上午10時着)▲交通部陸運局長 정재석씨(交通部第13次「에카페」交通會議참석후)

出國
◇NWA便(下午4時30分)▲「제임스·루이트」씨(뉴스·위크東京支局長) 取材後

政府人事

▲委員 李活 外資導入促進委員會委員을 解囑함▲國會議員 金周仁 外資導入促進委員會委員을 委囑함(10日字)▲機械技正 禹京洛 任工業副技監 命鐵道廳근무(15日字)

八面鋒

美、越南에 軍援增加키로。並行돼야할 越南自身의 團結과 精神武裝。

○

料亭出入公務員 罷免한다고。말로써만 끝맺는 紀綱確立策。

○

地方엔 强盜、都市에는 큰불。年末이 너무 어수선한데…。

○

奬學金에 免稅要求、稅法엔 免稅로됐는데 무엇으로 받아왔나?

○

證券市場에 가짜證券。僞幣犯도 수두룩한데 가짜없는곳이 있나?

오늘은 8面

내일 定期休刊

◇合格者名單號外發行 서울市內前期中學合格者名單 速報號外 其一·其二를 本紙와함께 配達했읍니다。

電話番號變更案內
弊店 電話番號를 12月13日부터 아래와 같이 變更하겠아옵기 案內드리오니 倍前의 愛護를 바랍니다
(92)自5317 至5319 交換臺
(92)-7802…當座係直通
상업은행신설동지점

「말」聯등 中近東巡訪
朴大統領…訪美·訪臺후에 推進計劃

【베를린에서本社特派員 李慈憲發】朴正熙大統領은 明年에 美國、中國을방문한후「말레이지아」共和國을비롯한 中近東數個國을 순방할 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

西獨을방문중인 朴大統領을 수행한 李厚洛秘書室長은 11日밤 朴大統領의 中近東巡訪계획이세워지고 있음을밝히고『大統領의 訪問外交가「積極外交」를 위해 가장효과적이라는것을 이번 訪獨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美國과 臺灣을방문한후 다시 몇개國을 더 순방할계획이 세워지고있는것』이라고 말했다。

料亭드나드는 公務員은罷免
丁總理嚴重示達

丁一權國務總理는 12日상오 관계長官을 總理室로불러 公務員不正근절대책을협의하고『料亭에出入하는 公務員은 가차없이 파면한다』고全國公務員에게시달했다。

이날 상오10時30分부터 12時까지 계속된 이모임에는 楊內務、閔法務、李總務處長등 세長官과 李監査院長、金中央情報部長、申檢察總長등이 참석했는데、丁總理는 특히 年末年始에 선물의授受、「카드」의교환、料亭出入등을엄중단속하라고 지시했다。

財政委員長職辭退
民政黨의高興門議員

民政黨의 高興門의원은 12日『黨內紛을 수습하기위한 居中調停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財政委員長및 黨務委員職을사퇴한다고성명했다。그러나 직접적인辭退동기는 民政黨黨舍移轉이의논없이결정된데있는것으로알려졌다。

波動의周邊
民政1年…主役들과의對話 =⑥=
改閣 丁一權總理는 이렇게본다
痼疾…「툭하면 바뀌는 얼굴」

63年12月17日 民政의돛을달고 出發했던 崔斗善內閣이 불과1百46日만에 難破하고、그뒤에는 5名의長官을갈아 1年이 거의 된오늘、出帆당시의 國務委員18名中 불과3名만이 그대로남고 3名은暫任、나머지3분의2가 물러서야했던長官更迭。지난한햇동안 政府가당초내걸었던 安定과는달리 政局이얼마나 흔들렸던가를 살피게한다。

지난5月10日의첫改閣으로 第2代國務總理가된 丁一權씨는『經濟發展과 社會安定등이 모두 政治의 安定위에서만 가능하다』면서 지난한햇동안『長官이 많이 바뀌었다하지만 軍政에서 民政으로 넘어가는 過渡期에 튼튼한橋梁役割을 다하기위해서는 部分的인 手術은 불가피했다』고 그간의 事情을 설명한다。

그自身이 직접 內閣을 지휘하면서 일어난 閣員更迭에 대해 丁總理는『內閣이란 長官 한사람한사람의 力量도중요하지만、그보다도 全國務委員의「팀·워크」가더한층 중요한것이다。따라서 一貫된 政策을 실현하는데있어서 關係長官끼리意見을 달리한다든가 혹은 결정된 政策을 수행하는데있어서 成果가 나쁠때에는 부득이 斷案을 내리지않을수 없는것 아닌가』하고 反問한다。

丁內閣에서 朴東奎財務와李廷煥財務가 둘다 張基榮副總理와의 意見差異로 解任된데대한 설명이다。

『우리內閣이 經濟政策을 有機的으로 遂行하기위해서는 副總理를 중심으로 全經濟長官이한데뭉쳐「팀·워크」를해야한다는것』이現政府責任者들의意思라고 밝혔다。

李晳榮公報部長官이 言論波動때 政府의 强壓政策에 反對하여 스스로 물러선것도 같은 이유로 해석되고있다。丁總理는 또 그밖에 洪憲杓遞信과 金允基交通이 그만둔데대해서는『國家百年大計를 위해서 公務員의 腐敗와 不正을 근절해야 한다는것이 朴大統領이나 나의 所信인데 本人이 직접 嫌疑를 받거나 혹은 指揮監督의 責任을 다하지못했기때문에國事를위해 一罰百戒로 처리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라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現內閣은 滿點은못되도 强「팀」』이라고말하는 丁總理 <11日下午總理室에서>

이와같이長官이 자주바뀜으로써 일어나는 政策遂行上의 蹉跌에 대해서는 丁總理도 어느정도시인했지만『그러나 後任者들이 倍前의 努力으로뒷收拾에 힘썼기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다』고…。

지난 4月들어 表面化했던 政局의不安과 共和黨의 入閣要求를 수습하기위한 突破口로 일부改閣이 論議되자 崔斗善總理가 이를 반대하고 總辭退。뒤이어『奇襲的으로 國務總理에 指名되어 登場했다』는 丁總理는 그당時 長官更迭이나 重要人事異動이 있을때마다 共和黨議長과 事前協議를해왔다고 했다。그래서 共和黨과行政府는『거의一體가되다시피 협력해왔다』면서도共和黨에서요구하고 있는全國務委員의 入黨문제는年末全黨大會때 가서『원만히 처리하겠다』고 할뿐、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를 딱잘라 말하려하지않는다。

丁總理는 닥쳐오는『險路와 難關을무릅쓰고 代議政治의 완전한 蘇生을 위해 많은努力을해왔음에도불구하고 逆說的으로 그의閣僚中 세사람이國會에서 解任建議案까지제의되었다가 廢棄된것을『가장유감스러운일』이라하고『그러나 國會도 與野가 巨視的으로相互協調해야만 이나라 政局이安定될것』이라고、마치 野黨이 長官解任建議案을政爭道具로 利用하려하는 폐단을 지적하는것같았다。

國務委員 1年에 자리維持3名뿐
「팀·워크」위해 할수없는일

그처럼 많은 長官을갈고도 모자라서인지 요즘 또다시 朴大統領이 西獨訪問에서 돌아오면 一部改閣이 있으리라는 風聞이 政街에 떠돌고있는데 대해 丁總理는 웃음을띠면서『자랑 같지만 現內閣이 滿點은 못된다더라도 强「팀」이라고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일은없을것으로안다』면서도『改閣이나 長官更迭이 政策發展上의 理由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는 先進國의 경우를부러워하고 하면 갈아치우던 지난한날의 後進的인 政治生活을 하루빨리 止揚해야 한다』고 했다。

『佛蘭西를 보아요、第4共和國때 改閣이 얼마나 빈번하고 또 政局이 얼마나 不安했던가를…』 우리도앞으로는『長官이한번 들어서면 政策을 구상해서 실천할수있는 충분한 時間을주어 국민이 成敗와 能力을 판가름하도록 해야할것』이라고 時間的 餘裕를 다시한번 호소했다。

<五>

<既刊>
世界傳記文學全集
世界의人間像
全12卷
全帙特價 3,700원

世界戰後文學全集
全10卷
普及版 各卷 230원 全帙特價 2,000원
特製版 各卷 360원 全帙特價 3,300원

英美語文學叢書
全10卷
全帙特價 3,800원

<近刊>
韓國엔 人物이 없다고 하지만……
歷史를 누벼온 200餘人의 人間發掘
여기 흙 속에 묻혀졌던
빛나는 얼굴이 있다.
韓國傳記全集
韓國의 人間像
編輯委員 李熙昇·朴鍾鴻·李相佰 白 鐵·韓沽劤·鄭炳昱
收錄人物=王系·政治·軍事·宗教·社會·學術·文學藝術·近代化 등 10餘個 部門에 걸친 200餘名 收錄

★讀書속에 보내는 新丘의 五大全集! ★讀書속에 보내는 新丘의 五大全集! ★新丘의 五大全集! ★

文學의 알프스, 知性의 萬年雪! 우리에게도 노오벨文學賞의 頂上이 보인다

今年度受賞作家 사르트르篇 販賣中

全7卷 노오벨賞文學全集

살아 있는 現代의 文學史! 이것이 노오벨 文學賞이다

1901年부터 今年度 사르트르까지의 受賞作家 59名의 作品 120餘篇을 收錄한 全集!

(사르트르 近影)

노오벨 文學賞은 人類의 歷史와 함께 간다
이全集은 노오벨文學賞의 年輪과 더불어 쌓여 간다
모든 讀者는 그 기다림 속에서 산다

7 사르트르篇
── 代表作 4篇 收錄 ──
嘔逆(長篇小說) 李彙榮譯
壁(短篇小說) 李彙榮譯
말(내 生涯의 記錄) 方坤·元潤洙 譯
實存主義는 휴머니즘이다 (評論) 方坤譯
作家의 世界(解說) 李彙榮

그는 왜 노오벨 文學賞의 榮光을 拒絶했을까?
實存主義 文學을 總決算하는 사르트르文學選集

■全七卷收錄作家
1 쉴리·프뤼돔/몸젠/뵈른손/F·미스트랄/에체가라이/센케비치/카르두치/루드야아드·키플링/오이켄/라아게를뢰에프/하이제
2 메에테를링크/하우프트만/타고르/로망·롤랑/헤이덴쉬탐/겔레루프/폰토피단/쉬피텔러/크누트·함순
3 아나톨·프랑스/베나벤테/예이츠/레이몬트/버나아드·쇼오/델레다/베르그송/운세트/토마스·만
4 루이스/카를펠트/고올즈워어디/부우닌/피란델로/오니일/마르탱·뒤·가아르/퍼얼·벅/실란페/엔젠/가브리엘라·미스트랄
5 헤르만·헤세/앙드레·지이드/T·S·엘리어트/포크너/B·러셀/라아게르크비스트/모리악/윈스톤·처어칠
6 헤밍웨이/락스네스/히메네스/카뮈/파스테르낙/콰지모도/상·종·페르스/안드리치/스타인벡/세페리스

全7卷 完刊 配本中! 月賦豫約 接受中!
各卷 350원 全帙豫約價 2,100원
新丘文化社
서울 光化門局 私書函 320號
振替 서울 872
電話 ③7163 ⑫4838 ③4847